

제2356호 2019. 5. 12.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광주, 어때?”

저는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지내고 있는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입니다.

“광주 어때?” 이 질문은 지난 1월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으로부터 광주 가톨릭대학교로 이사 온 이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저의 답은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신학생들의 마음으로 몇 가지 생각을 담아 인사드릴까 합니다.

“광주, 어때?”라는 질문에는 지난 세월, 지역의 감정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우려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교구의 많은 선배 신부님들께서 생활하셨던 광주 신학교의 추억과 교풍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남도’에서 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이곳 ‘광주’는 분명한 ‘도전’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그라든 손’ 마냥 잠재된 선입견과 ‘낮췄’에 대한 두려움과 ‘다름’에 대한 수용의 용기를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전은 새로운 기회임을 밝게 가르쳐줍니다. 그 기회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오그라든 선입견은 서로를 알아 가면서, 새로운 시선을 선사할 것입니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달리 보인다. 옛 성현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소의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고자 하고(知), 아는 바를 진리로 내면화하여(德), 생명의 몸으로 드러내고자 함(體)입니다. 더더구나 이곳 광주의 ‘못자리’(신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소자들은 한 분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겪는 인간적인 ‘낮췄’과 ‘다름’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적 사랑 안에서 ‘다양성 안의 일치’, ‘일치 안의 다양성’으로 승화되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벌써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연대하고, 협력하여 장차 교회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넓은 시야와 깊은 품을 지니고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구민 여러분!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광주 신학교를 멀리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광주 신학교는 우리 교구의 미래 일꾼들이 신학교의 교시인 ‘진리에 봉사’(Servitium Veritatis)하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못자리’가 되었습니다. 격려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우리 신학생들이 특 쏘는 흥어 맛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본 기 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제 1 독 서 사도 13,14.43-52

화 답 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또는 ◎ 알렐루야.

제 2 독 서 묵시 7,9.14-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27-3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She tied you, She broke your throne and she cut your hair
And from your lips she drew the Hallelujah*

- 레너드 코언.

자유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의지, 이 신성한 불꽃이 인간의 영혼에 불을 붙이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역사를 바꿔놓으며 그의 이름은 세대를 뛰어넘어 길이 남으리라.
위대함과 나약함, 힘과 어리석음이 공존한 이, 그의 이름은 삼손이었다.

- 영화, 삼손과 데릴라, 1949.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 삼손,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삼손의 힘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힘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세상 권세의 지배에 묶여있는 백성을 구해 내야 했습
니다. 그러나 힘을 잃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혹에 빠져 스스로를 집착에
묶어버려, 풀어야 할 이가, 묶인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 너의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예쁜 공작새에게 달려가려고 자신의 하느님을 버렸잖아요!

주님, 제가 눈을 돌려 적의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이제 제 눈을 꺼내 가시어 제가 더 잘 볼 수 있게 하소서.

보이는 것에 자신을 눈멀게 한 그 눈을 잃어버리고, 원수 앞에서 갖은 조롱을 당하며,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으로, 내면의 눈을 번쩍 뜬 그는,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 판관 16,28.

*그녀는 너를 묶었고...너의 머리카락을 잘랐다...알렐루야.

명례 작은 음악회

아름다운 계절 성모성월에 성모님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음악회**와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명례성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명례성지

제1부 감사미사

주례 :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일시 : 5월 18일(토) 늦은 4시

제2부 아가페

5시부터 / 라우렌시오 집에서

제3부 작은음악회

6시부터 / 라우렌시오 집에서

문의처 055.391.1205

● 교구 내 순교복자 성지 도보순례



|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담당 :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 강동주 세례자요한)는 ‘교구 내 순교복자 성지 도보순례’를 4월 20일 진례면에 위치한 ‘박대식 빅토리노 순교자 성지’에서 실시하였다. 레지아 평의원(꼬미시움 및 직속 꾸리아 간부)를 대상으로 진례성당을 출발하여 순교자 성지까지 4km에 이르는 도보순례이다. 진례면 국도변 야산에 위치한 성지에 도착한 레지아 평의원들은 순교자 묘지를 참배하고 기도하였다.

● 명서동성당 ‘베드로회 바오로회 성지순례’



| 명서동성당(주임 : 최재상 마리아 신부) ‘베드로회 바오로회 성지순례’가 4월 28일 있었다. 베드로회와 바오로회는 명서동성당 남성신심단체의 중심축으로써 신앙성숙과 단합을 도모하고자 순례를 다녀왔다. 회원들은 전주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성지를 순례하였다. 전동성당은 신해박해(1791년)와 신유박해(1801년) 순교지에 세워진 성당이다. 치명자산에는 신유박해 때에 돌아가신 유항검과 그의 가족 6명이 합장되어 있다.

● 신입·복학 신학생 부모 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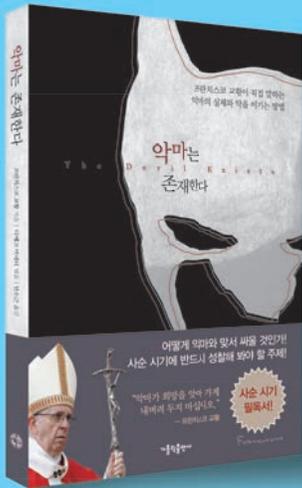


| 2019학년도 신입·복학 신학생 부모들을 위한 피정이 4월 28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성소국(담당 : 정연동 세바스찬 신부)에서 주최한 이번 피정은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시편 119,9)라는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신학생 부모들은 다큐 ‘사제’를 시청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성소국장은 사제가 기도하는 ‘영의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기도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 전례꽃꽂이회 피정



| 교구 전례꽃꽂이회 피정이 4월 30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마태5,3)라는 주제로 회원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정연동 세바스찬 신부(교구 성소국장)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서두로,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악마는 존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디에고 마네티 역음 | 안소근 옮김 | 228면 | 가톨릭출판사
 구입 문의 :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 055)248-3089

‘악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마가 박쥐 날개에 머리에 빨 달린 모습으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혼들을 집어 삼키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까요? 또는 구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마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가톨릭교회는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통해 ‘타락한 천사인 악마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불순명을 선택하게 된 배후에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유혹의 목소리가 있었다. ……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그 목소리에서 사탄 또는 악마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를 본다. ……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391항)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봐도 악마가 어떤 존재인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과연 악마가 존재하는 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악마는 존재한다》에서 “악마는 존재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늘 온화한 미소를 띠는 교황님이 악마를 언급하시다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악마는 존재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황님, 21세기에 악마에 대해 말하다니 옛날 사람이시군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악마는 존재합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악마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황님은 복음서를 기반으로 악마를 물리치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부분,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장면 등을 하나하나 설명 하시면서, 예수님에게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 주십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자주 받는 유혹인 험담, 허영심, 게으름, 세속성, 거짓을 언급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주님께 끊임없이 청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말해도 될까요? 마귀는 우리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쪽 길이 좋아. 그런 말은 듣지 마, 너는 훌륭해. 이리 와, 돈을 좀 모아 봐.’ 돈은 당연히 허영심을 가져오고, 허영심은 교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길에서는 마귀가 임금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등을 토닥이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 교황님은 독실한 신자들을 향해서도 자만하지 말고 유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군가는 ‘하지만 저는 열심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언제나 미사에 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할 대답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혹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악마는 존재한다》에는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과 함께 성경, 여러 성인과 교황, 교회의 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묵상과 통찰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교묘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의 실체를 깨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만이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어른이 만든 아이들의 세상 8”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30, 40년 전만 해도 노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첫째, 구역이 넓지 않았습니다. 아랫동네, 윗동네 따로 놀았습니다. 혹시라도 한 동네에 ‘어리바리’(?한 애가 있어서 다른 동네에서 얻어터지면 ‘행님’들이 나서 주십니다. 둘째, 부모님들이 먹고사느라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래 층이 형성되고 서열이 만들어지고 표현하기 힘든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형성 되었습니다. 셋째, 사는 게 고만고만해서 특별히 왕따 당하거나 잘난 척하는 애가 별로 없었습니다. 잘난 척하면 노는 데 ‘깡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들 누구네 자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 욕 먹일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는 구역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윗동네 아랫동네가 사라지고, 포래들이 사라지고, 자신을 보호해 줄 동네 친구나 형님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이 먹고살기 바쁘기는 마찬가지지만, 애들을 학원으로 보내 버립니다. 아이들은 낮은 사회적 계층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일진의 서틀(학교에서 잘나가는 애들이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담배 등을 사 오라고 시키는 행위나 그 아이들을 이르는 말. 빵 서틀)로 비굴한 삶에 눈을 뜹니다.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누가 누구의 부모인지를 모르니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낮가릴 일이 없습니다.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남의 눈만 피하면 불법이고 부정이고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어른이 만든 아이들의 세상.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느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현숙 아마따 • 수필가

인문학을 위하여!

‘인문’은 인간다움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후마나타스’에서 유래한다. 나뭇결, 비단결, 살결, 돌결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고유의 결을 지니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무늬가 다름 아닌 인문이다. 그리고 문학, 역사, 철학, 언어, 종교, 예술, 고전 등 인간의 문화와 역사와 사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인간의 품성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고양하는 동시에, 사회를 향한 건전한 비판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대의 나침판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는 인문학 바람은 열풍은커녕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조금 부풀려 표현하자면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 고사 직전이다. 이는 대학이 어느덧 기업의 축소판이 되어 버린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업의 자본을 수용한 대학이 독립성을 발휘할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대학 내에 이미 기업의 자본과 시장 논리가 깊숙이 침투한 마당에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순수성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를 바 없다.

대학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 해서 필요하다면 취하고 쓸모가 다하면 내치는 ‘토사구팽’식 구조조정법을 정리해고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본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시간강사들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인문학과의 개편, 인문학 교양과목의 통폐합 같은 단편적인 행정 처리도 유감스럽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다. 인문학이 홀대를 당하면서 인문학도들 사이에서는 ‘문송합니다’ 즉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자조 섞인 신조어까지 나온다.

패륜 범죄, ‘묻지마’ 범죄, 잔혹 범죄, 각종 부조리와 부패와 비리와 편법이 일상다반사가 된 것도 모자라 일말의 죄의식마저 실종되는 등 인간의 결이 날로 거칠어져 가는 현실이다. 이런 배경으로 효율성의 극대화에 밀려난 인문학의 반격을 지목하려 한다. 인문학이 쇠퇴하면 사람 노릇을 제대로 배울 길이 막히게 되니 결국 인간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5G 시대며 수소·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으면 어쩌랴. 삶의 질은 떨어질지언정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 부자 간, 부부 간, 사제 간 존경과 사랑의 부재가 염려되는 터에 오월 달력을 빼곡히 채운 기념일이 본질은 아니지 않은가.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인문 후진국으로의 후퇴를 막을 선진적 수준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기억할 사제

5. 17.(금) : 故 정순구 요한 신부



교구장 동정

일시 : 5. 13.(월)~17.(금)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 사제피정

일시 : 5. 18.(토)
 장소 : 명례성지 성당
 내용 : 미사 주례

교구·분당

- 사제피정 1차
 일시 : 5. 13.(월)~17.(금) 4박 5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 성경 배경이야기-탈출과 정착시대
 일시 : 5. 14.(화) 14:00~16:00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수강료 : 3만 원
 문의 : 성경부 055.249.7025~6
- 장례지도사 3차 교육
 일시 : 5. 17.(금)~19.(주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사회복지국 055.249.7042
- 제439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 5. 19.(주일) 13:00
 장소 : 교구청
 대상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향심기도의 열매와 은사 (2박 3일)

일시 : 5. 27.(월) 15:00~29.(수) 15:00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 향심기도 피정 경험이 있으신 분
 참가비 : 16만 원
 문의 : 055.221.1891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 매주 (화) 19:30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 교구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 매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 매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 매 (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 매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 매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 매 2, 4주 (토) 19:30/ 대건성당
 거제 : 매 2, 4주 (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 매 3주 (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 매 3주 (토) 22:30/ 국산공소
 문의 :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청년성가집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안내
 가격 : 1만5천 원
 문의 : 청년부 055.249.7065
 카톡플러스친구 검색 : 청년성서모임 성가집 주문

위원회·기관·단체

-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
 일시 : 5. 13.(월) 19:30
 내용 : 5.18 다큐 '그의 이름은' 미사와 영상
 장소 : 교구청 강당
 문의 : 정평위 055.261.8201
-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 5. 15.(수) 19:00
 장소 : 교구청
 문의 : 정평위 055.261.8201
-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회의
 일시 : 5. 17.(금) 18:30~21:00
 장소 : 교구청
 문의 : 평협 055.249.7114
- 신앙대학 심화과정
 일시 : 5. 18.(토)13:00
 장소 : 교구청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 레지아 청년단원피정
 일시 : 5. 18.(토)~19.(주일)
 장소 : 산청 성심원
 문의 : 레지아 055.249.7115
- 체나콜로(다락방) 5월 월기도 모임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묵주 100단 기도
 일시 : 5. 20.(월) 09:00~16:00
 장소 : 사파동성당(미사집전)
 문의 : 회장 010.9399.5454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불링)
 기간 : 3월부터 12월
 장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 055.247.5195~7

<p>풍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p> <table border="1"> <tr> <td>5월 24일</td> <td>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td> <td>13일</td> <td>415 만원</td> </tr> <tr> <td>8월 20일</td> <td>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td> <td>11일</td> <td>350 만원</td> </tr> <tr> <td>8월 20일</td> <td>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td> <td>12일</td> <td>429 만원</td> </tr> </table> <p>▶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p>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p>(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p> <p>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VIP 공항투어 워딩 가족관광</p> <p>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p> <p>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씁니다.</p> <p>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p>	<p>더편한요양병원</p> <p>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p> <p>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p> <p>국내 성지순례 5. 25(토) 공세리성당(아산) + 신리/합덕성당(당진) 참가비 4만원 / www.mrtouring.com 미래고속관광 055.333.6300 대표 우 중 한 리차드 010.3720.0303</p>	<p>가톨릭신문투어</p> <p>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p> <p>▶ 6/12 발칸반도 12일 375만원 ▶ 6/15 이스라엘 9일 360만원 ▶ 6/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 7/5 비르셀로나, 파티마, 루르드 11일 395만원</p> <p>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p>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시 :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소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의 : 055.237.6487

— **수도회** —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50세 이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 3월 중~6월 / 해당 지역 전화 요망

- 창원 : 010.4542.0347
- 마산 : 010.7315.6059
- 진해 : 010.8583.4350
- 거제 : 010.3807.1618
- 거창 : 010.4630.2838
- 내서·함안 : 010.5006.6254
- 통영·고성 : 010.2836.7720
- 산청·함양 : 010.5911.8792
- 진주하대동 : 010.3009.0650
- 진주칠암동 : 010.2776.2414
- 진주신안동 : 010.8831.3311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젊은이 선교체험(대만)**

일시 : 8. 1(목)~6(화) 5박6일
 대상 : 만19세~만35세, 청년 남녀 15명
 경비 : 100만 원(항공료포함) / 마감 : 6월 중순
 신청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53.0613

2019 엠마오 여행 (루카 24,13-35)

▶ 교구 홈페이지 참조

1 말씀풀이 4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루카 24,50-53)

2 순례와 미사

마산교구 순교복자 성지 또는 하느님의 종 묘소

3 증언하기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누기

응모내용 : 말씀풀이 5개, 순례지 사진 1장,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눔
 응모기간 : 부활 제5주일 ~ 주님 승천 대축일
 보내실곳 : 미디어국 media2@cathms.or.kr 또는 전화(부활 제5주일 공지)
보내실곳 메일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발표 : 성령 강림 대축일

— **기 타** —

■ **2019 대구성령축제**

일시 : 5. 25.(토) 09:00~18:00
 장소 : 성 김대건기념관(대구 남산동)
 강사 : 안토니 데카나스 신부 (통역: 배형진 신부)
 표중관 신부, 이성진 신부
 주제 : 교구장 조환길(타대오)대주교
 문의 : 대구성령봉사회 010.9045.0191

■ **제주 힐링 성지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 5. 28.~30. / 6. 4.~6. 7 / 7. 12.~14. / 8. 9.~11. / 9. 17.~19.
 장소 : 제주성지 6곳 (성지해설)
 문의 : 064.805.9689
 해외성지순례 : 10. 3.~9. 그리스성지순례 7일

■ **부산교구 <혼인강좌> 교수 초빙**

분야 : 심리학 및 유관 학문
 서류 : 이력서, 교적,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 : 7월 말까지 / 우편접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8-7 가정사목국
 문의 : 가정사목국 051.441.3500

∴ **진해지구 5월 낮피정** ∴

일시 : 5. 13.(월) 13:00~17:30
 장소 : 중앙성당
 주제 : 하느님과의 만남 -1요한4,16
 강사 : 황인숙(마리아, 서울교구)
 미사 : 정철현 바오로 신부
 문의 : 담당자 010.7566.9441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5. 13.(월) 19:00	월남동성당	죄와 죽음위에 있는 생명의 빛	이병주 신부(시몬, 부산교구)	이병주 신부(시몬)	010-5072-5612
창원지구	5. 13.(월) 19:00	반송성당	제3강 : 새생활의 원천이신 성령	윤영수(스테파노, 전국회장)	이영민 신부(베드로, 삼위일체)	010-9664-1813
진해지구	5. 14.(화)~18.(토)	중앙성당	성령묵상회	19:00~22:30		010-7566-9441
청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5. 18(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 vocation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라파엘여행사

-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99만원)
- ◆ 9/11 추석특선 **아테리일주 9일** (299만원)
-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민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부산 or 대구 출발 직항편 매일확보 / 전문 교우가이드 배치

1. 북부 순교성지 +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2.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호이안 3박5일 (110만원~)
3. 북부 + 중부 성지 핵심일정 포함 4박6일 (130만원~)

< 분당 및 신심단체 환영, 소규모 그룹 연합(상시 모집), 별도일정 협의가능 >

투어찬스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미산 상계)
 010-2992-478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아빠 아버지

신약성경엔 아빠 아버지란 표현이 3번 등장한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마르 14,36).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로마 8,15). “주님께서 아드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갈라 4,6). 아빠는 아람어(Abba) 음역이다. 비슷한 소리로 번역한 말이다. 한때는 ‘압바’라 번역하기도 했다. 마르코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했다. 로마서와 갈라티아서는 신자들의 외침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은 아람어(Aram 語)를 사용했다. 아람어는 아람 민족 언어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며 싸웠던 나라로 지금의 시리아다. 히브리인과 비슷했고 기원전 16세기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다. 기원전 722년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민을 잡아갔다. 수도 사마리아엔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을 이주시켰다. 남쪽 유다도 바빌론 식민지가 되자 민중은 아람어 문화권에서 살아야 했다. BC 538년 페르시아는 가나안 땅을 통일한 뒤 아람어를 공용어로 선언한다. 유대인 입장에서 일상용어가 된 것이다. 희랍의 지배를 받을 때도 민중 언어는 여전히 아람어였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

성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이유다. 히브리어는 전례 용어로만 남아있었다.

아람어 아빠(Abba)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지만 장성한 뒤에도 나이 든 분에게 이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 호칭으로 하느님을 부르진 않았다. 어린이가 말로 주님을 부른다는 건 외람된 것으로 여겼다. 유대인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느님을 강렬하게 느끼셨기 때문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길 원하셨다. 아빠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시며 우리는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신약성경은 희랍어로 쓰였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아빠(Abba)는 아람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을 아바로 불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말 아빠도 예전부터 있던 말이다. 궁에서 사용하던 아바마마의 아바가 변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비와 애비도 아바가 원형이다. 기록으로 보면 아버지란 말보다 오래되었다. 구약의 하느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셨다. 예수님께서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다가가셨다. 사도 바오로 역시 이 호칭을 사용했다(로마 8,15). 예수님의 아빠 하느님을 체험했던 것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그린 북(Green Book: 1962년 짐 크로벵에 따라 유색인종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와 음식점 등을 소개한 안내서)’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인종 차별을 다룬 영화이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천재라 불렸던 유명한 피아니스트 돈 셸리는 두 살 때 피아노를 친 신동으로 물질적으로는 상위 1%의 삶을 누리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지만, 피아니스트가 아닌 한 인간으로 내려오면 똑같이 인종 차별을 받는 흑인일 뿐이다. 이 영화에서 돈 셸리는 크리스마스 즈음까지 인종차별이 더 극심했던 남부지역을 돌며 콘서트를 할 예정으로 자신과 동행할 운전사 겸 비서로 백인인 토니 발레롱가를 고용하게 된다. 이들은 처음부터 너무 달라 티격태격하지만, 여행을 통해 차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후 이들의 우정은 50년간 지속하였다고 한다. 돈 셸리는 인종차별이 난무하던 그때 “품위를 유지할 때만 이긴다. 폭력으론 이기지 못한다”며 깔끔한 정장 차림에 포크와 나이프로만 식사하고 발음을 분명하게 하는 등 자기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노력을 한다. 그러나 마지막 콘서트장에서 정작 그날 연주의 주인공인 자신을 밖에서 따로 식사하도록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안내하는 지배인의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와 버린다. 그동안 백인들의 고급

피아노 앞에서만 연주했던 그가 같은 피부색을 가진 흑인들의 허름한 식당에서 즉흥 연주를 벌이며 비로소 해방감을 맛본다.

영화 ‘증인’은 한 변호사의 이야기다. 민주 변호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정의 대신 사회적인 성공을 꿈꾸며 대형로펌으로 옮겨와 무료 변론을 맡게 된다.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한 자폐 소녀를 만나게 된다. 재판에서 증언이 꼭 필요했던 그는 소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소녀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신뢰를 조금씩 얻게 된다. 재판의 성공과 실패,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걸린 기로에 선 그에게 소녀는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라고 질문한다. 자폐아는 정신병자이므로 증인으로 세우기 부적절하다는 상대측과 맞서 자폐적 성향은 장애가 아니라 ‘특별함’일 수 있음을 깨우쳐 준다.

피부색, 외모, 학벌, 직업, 주거, 교육, 성, 장애, 인종차별(난민, 이주민), 이념 등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판치고 있다. 영화는 질문한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